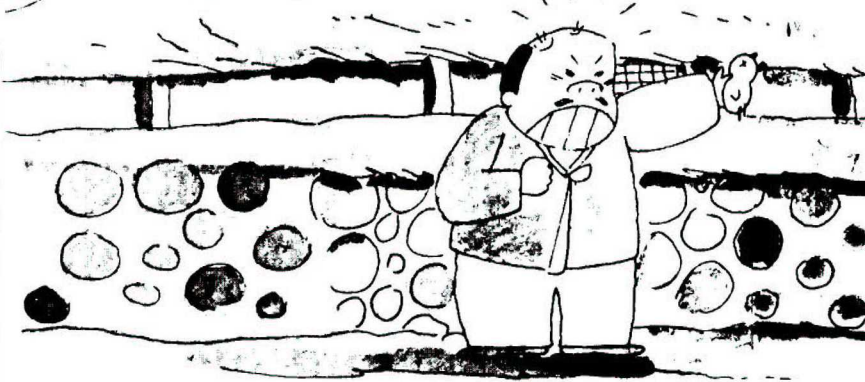




쫄을 위하여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맛있는 쇠고기를 못먹듯이 나는 멍멍탕이라고 불리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보신탕집은 오래 뒷골목 같은 곳에 숨어 있기 마련인데 미식가인 친구들은 용케도 그곳을 알아내어 가끔씩 찾곤 하는 모양이다.

나도 한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밤 나는 거의 죽을 뻔했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것이다.

「아이구, 아이구 배야.」

나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배를 싸쥐고 덩굴었다. 진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리저리 방안을 기어다녔다. 빨래를 쥐어짜는 것처럼 창자가 비비 꼬이고 있었다.

마침내 앰블런스까지 앵앵 달려왔다. 그제야 나는 침 대응으로 쓰곤 하던 바늘을 생각했다.

「여기를 바늘로 따라구. 아이고 마누라야, 나 죽네.」

아내는 다행히 나의 말을 열린 알아 들었다. 바늘을 가져오더니 왼쪽, 오른쪽 엄지 손톱 바로 위를 따는 것이었다.

검붉은 피가 한방울씩 금새 솟아났다.

「이제 좀 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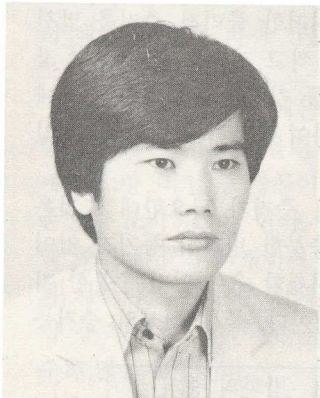
나는 바늘을 쥐고 있는 아내를 구세주나 부처님 바라보듯 쳐다보았다. 그래도 아내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밖에 앰블런스를 불러다 왔어요. 타겠어요?」

「아니야, 이젠 됐어.」

「저녁을 뭘로 했기에 그래요?」

「자꾸 말 시키지 말라구. 멍멍탕 좀 했지. 그게 무슨 죄야!」



정 찬 주

- 동국대 국문과 졸업
- 「한국문학」 신인상 소설 부문 당선으로 데뷔
- 「夢外鳥」, 「겨울南行」, 「무문사에 가서」, 「그림자와 칼」 등의 작품 발표



「어머, 징그러워라. 개고기 드시다니.」

「아이구, 배야……」

나는 아내의 말대꾸가 귀찮아서 다시 배를 잡고 텅구는 척했다. 아내는 더 이상 개고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을 때, 이러한 방법을 한번 권하고 싶다.

가령, 병원이나 약방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심한 위경련 같은 것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보라. 한없이 막막하고 답답해질 것이다. 그런 경우를 예비해서 각자 바늘 한개씩 준비하고 다녀도 나쁠것은 없으리라.

어쨌든 나는 그날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 그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 때도 있다. 친구들은 무슨 음모라도 꾸미듯 나를 슬쩍 떨어뜨려놓고 저희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그 으스스한 집을 가곤 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녀석들을 향해서 속으로만 소리치곤 하였다.

「너희들도 언젠가 배를 싸쥐고 나딩굴 때가 있을 것이다. 비겁하고 치사한 놈들!」

우리집에서 살다 죽어간 개들의 원혼 탓일까? 하긴 우리집에서 천수를 다 누리고 자연사한 놈은 단 한마리도 없었다. 모두 다 비실비실 앓다가

단명했거나 아예 우리집을 도망쳐버린 놈도 있었다.

제법 푹푹하다고 믿었던 방울이의 가출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쓰럽다.

「방울아, 방울아.」

나는 온동네를 미친 듯 돌아다녔었다. 녀석은 너무 영리해서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나한테 매를 맞은 적도 있었다.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까지 들어와 배개를 베고서 벌렁 나자빠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 식구중에 호랑이 띠가 있기 때문에 개가 안된다고들 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호랑이 띠였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무심한 성깔로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진 사람들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진도개를 키우고 싶어서 진도에까지 간 적이 있었다. 개를 데리고 오다가 여객선끼리 부딪치는 바람에 수중고혼이 될 뻔도 했던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한테도 개에 대한 정성이 있다고 봐야 옳았다.

그런데도 우리집 개들은 단명했다. 검둥이나 흰둥이, 바둑이나 누렁이 그리고 무슨 연유에서 양키들의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메리나 쫘, 워리 등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놈은 쫘이었다.

우리집에 쫘이 살았을 당시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시장 안에서 가장 큰 것은 나무전이였다.

나는 쫘을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았었다. 꼬리가 없는 데다 볼품없이 다리가 구부정하였다. 어른들은 쫘을 보고서 혀를 차기도 하였다.

「얼마나 많이 쳐먹으면 짜구가 난다야.」

녀석은 노상 말썽을 부리고 다녔다. 남의 집 대문 앞에 곧잘 똥을 싸고, 또 어떤 때는 남의 병아리나 오리새끼를 물어 죽이곤 하였다.

게다가 쫘은 짓지 못하는 병어리였다. 낮 모르는 사람이 오거나, 신경질이 날 때면 킁킁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녀석 때문에 이웃집과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가끔 죽은 병아리를 들고서 무섭게 생긴

이발소 아저씨가 쫓아왔다. 아저씨의 머리에는 커다란 흉터가 군데군데 나 있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벼락을 맞아 그런 것이라고들 하였다.

「병신 개새끼 단속 좀 잘하슈」

「어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은 슬슬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소리가 거침없이 오고갔다.

「짜구난 개하고 한통속이구만」

「또 벼락맞을 사람같으니라고」

어른들끼리 한차례 불꽃을 튀기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끼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악악거렸다.

무기력하게 보여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씩씩하고 용감했다. 나는 이발소 아저씨가 무서웠다. 그러나 한구석으로는 불을 뿜는 것이 신났다.

여기서 나는 결코 이웃간의 싸움을 미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싸움 역시 생존경쟁의 한 단면이 아니었을까. 그때 나는 분명, 내 가족이라는 풋풋한 소속감을 느꼈었다.

우리집 식구들은 대체로 말이 없는 편이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내 부모이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인가 싶게 서로들 무심했다. 말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대꾸를 할 뿐, 언제나 입을 다물고 다녔다. 성깔이 괘괄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끔 담을 넘어갈 뿐, 집안은 늘 산사처럼 적막했다.

친척들한테 공연한 오해를 사기도 하였다.

「인정머리없는 사람같으니라고, 지들 잘되는가 어디 한번 두고보라지!」

식구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타고난 천성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때마다 쫓이라도 쫓겨 찾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싸울 때만큼은 완전히 예외였다. 병어리처럼 언제까지나 굳게 입을 다물고 있을 것만 같던 식구들이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이었다. 벼락 맞은 아저씨와 싸울 때는 더욱 그랬다.

「개같은 사람들같으니라고」

「벼락 맞아 돼질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두로 해서 온 식구들이 합심해서 불을 뿜어댔다. 잠시 쉬고 있던



휴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폭발을 하였다. 핏줄을 확인하려는 듯 원시적으로 악악거렸다.

어쨌든 이쯤에서 쫓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 이웃간의 전쟁을 결코 미화시키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름철, 태풍이 한차례 지나가고 난 후였다. 그때 형과 나는 작은방에서 자고 있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가 먼저 들었다. 분명 형이 잠꼬대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방바닥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형을 깨웠다.

「형!」

「.....」

「형!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어디서?」

「방바닥에서」



그제야 형은 눈을 크게 떴다.
 「지진이 아닐까?」
 「잘 들어봐. 종의 소리야.」
 「종이라구?」
 형과 나는 다시 방바닥에 귀를 대었다.
 킁킁대는 소리로 보아 틀림없는 종의 소리였다.
 잠시 후, 형이 먼저 후닥닥 일어났다. 그리고는
 구멍 난 뺨스를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 나도
 살금살금 형을 따라 나갔다.
 「종 나와라.」
 「종 나와라.」
 나는 형을 따라서 아궁이 속을 향해서
 소리쳤다. 그러나 종은 킁킁거리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다.
 「제기랄, 엄마 때문이야.」
 「왜?」
 「낮에 방이 축축하다구 불을 지켰잖아. 그때,

종은 방고래 속에 있었던거야.」
 「어떡하면 좋겠어.」
 「기다려봐야지. 나올 때까지.」
 종은 불길을 피해 방고래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버린 것 같았다.
 「야, 잠 좀 자자, 종아……」
 「형, 너무 그러지 말어.」
 「……」
 「종이 지난번에 형에게 화재신고를 했잖아.」
 부엌 옆에 마련한 여름철 임시 아궁이에서
 나무단에 불이 붙으려던 순간, 종이 방문을
 킁킁대며 흔들었던 것이다.
 종은 다음날 방안에서 구들을 걷어내고서야
 구출되었다. 녀석의 몸은 온통, 시커먼 검댕이
 묻어 검은 개로 변해 있었다.
 나는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었다. 그러나 녀석은
 나를 배신했다. 시장의 나무전에 불이 나
 식구들이 모두 불구경 갔을 때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영영 집을 나간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병든 개가 되어 나타났다. 친구들이
 나를 불러냈다. 아이들은 돌맹이를 한개씩 들고
 있었다.
 「돌맹이는 왜 들고 있니?」
 「미친 개한테 물리면 죽거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다리 부근으로 갔다.
 녀석은 종이 분명했다. 눈가에 눈썹이 끼어 있고,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녀석은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돌맹이를 던질 때마다 독이 오른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이들을 뚫고 종에게로 갔다. 어떤
 아이가 소리쳤다.
 「애, 물리면 죽는다.」
 그러나 종은 결코 물지 않았다. 오히려 선량한
 표정을 지으며 흐물흐물해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번인가 킁킁 짖어
 댔다.
 그후, 종은 우리집 마루 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멍멍탕 계절에 종의 명복을 다시 빈다. ■